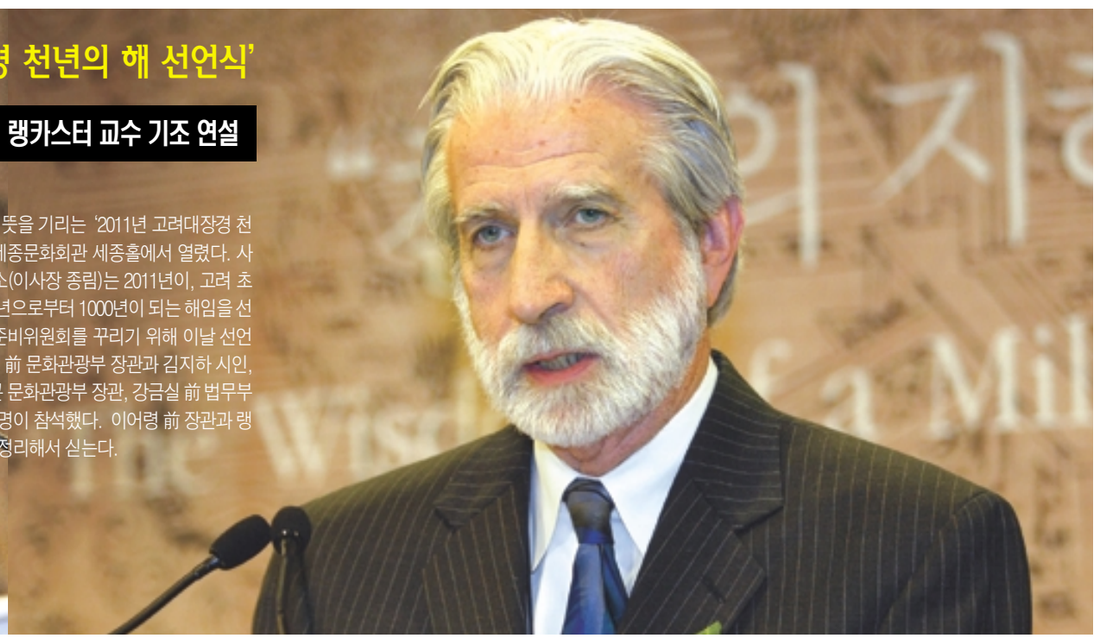
“생활 속에서 보고 뜻 기리는 대장경 탄생하길 ”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 랭카스터 교수 기조 연설

“천 년의 지혜를 천 년의 미래로!”
고려대장경 조성 1000년의 역사와 뜻을 기리는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이 4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011년이, 고려 초조대장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1011년으로부터 1000년이 되는 해임을 선포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칠 준비위원회를 꾸리기 위해 이날 선언식을 마련했다. 선언식에는 이어령 前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지하 시인, 남궁석 前 정보통신부 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강금실 前 법무부 장관 등 학계 • 문화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령 前 장관과 랭카스터 교수의 기조연설문 내용을 정리해서 싣는다.

■ 이어령(중앙일보 고문, 前 문화부 장관)

‘고려 공사 삼일(高麗公事三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처음에는 잘 되다가 조금 지난 후에는 흐지부지해진다는 뜻인데, 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짙은지를 보여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고려대장경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인, 한국문화에 대한 편견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과거 많은 경전들이 편찬됐지만 소실되지 않고 전하는 것 중 대장경을 첫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전들 중에서 고려대장경은 가장 오자가 없는 인쇄물입니다. 가장 정확한 판각 인쇄물이라고 한다면 고려대장경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 초조대장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애석해 했습니다. 하지만 재조대장경은 초조대장경 보다 더욱 더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較正)을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 기회에 어깨너머로 팔만대장경이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쳐주는 증거품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2000년 새천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저는 ‘천년’이라는 말이 기독교와는 또 다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려 가사에는 ‘즈믄 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千)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즈믄’인 것입니다. 오늘 고려대장경 조성을 발원한지 천년이 되는 것을 기리는 이유는, 즈믄이라는 것이 사랑과 영원이 담긴 한국인의 정신적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고려대장경이 갖는 즈믄 해의 행사는 세속적인 행사와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려대장경 천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2011년에는 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聖)과 속(俗)을 넘나드는, 종교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뛰어 넘는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팔만대장경판 뒤에는 시주자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고려대장경 천 년 행사가 종교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남은 4년 동안 온 국민이 발원해서 자기의 대장경을 봉헌하고, 직접 생활 속에서 보고 뜻을 기릴 수 있는 새로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대장경은 단순히 종교 경전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인쇄문화와 보존기술이 결집된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고 연구하는 것도 아울러 함께 시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려대장경 조성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원에 의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때, 당시 민중들의 역량과 결집력이 얼마나 강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합니다.

남아 있는 經 중 가장 정확한 인쇄물
종교 벗어나 우리나라 문화의 결정체
큰 프로젝트 이룬 민중들 연구도 필요

특히 몽고의 침입에도 고려대장경을 조성하고 이를 소실되지 않게 전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많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새로운 창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은 고려인들이 꿈꿨던 생명의 아픔을 초월하고자 하는 창조적 욕망, 그 어떤 전란도 태우지 못한 대장경의 영원한 존속의 꿈을 기리는 자리가 이 작은 모임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11년 행사에는 전세계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

오늘의 이 선언식은 앞으로 2011년까지 추진될 여러 행사와 기념사업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나간 천 년이라는 시간과 그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 전해지고 있는 초조대장경을 생각할 때 이는 실로 위대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91년 북송 개봉(開封)에서 온 사신이 당시의 신 인쇄기술로 제작한 불교 경전 2000여 권을 전했을 때 고려 개성 사람들이 느꼈을 흥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송으로부터 대장경 인쇄본 한 질을 받고 나서 고려는 자국의 목판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채 십 년이 지나지 않아 고려에서는 독자적인 목판인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의 문화 수용 능력 기려야
남은 작업 기간 중요…인경 복제에서
디지털 복사로의 기술 변화 보여줘야

오늘 우리는 1011년 실제로 목판을 새기기 시작한 일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 주목합니다. 그것은 목판인쇄술을 자국의 문화기술로서 완전히 소화해 받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위대한 성과인 동시에 목판의 제작을 통해 아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몽고의 침입 시에 고려인들이 처음 만든 목판대장경이 소실된 것은 세계문화사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짧은 시간에 강화도에서 재조대장경판을 조성했습니다. 그동안 초조대장경은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왔고, 그것을 찾으려는 제대로 된 시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0년대 11세기 고려 경판의 인쇄본 다수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대마도의 지방 박물관에서 발견된 초조대장경 인본 수백 권과 교토 남선사 수장고에서 전하는 2000여 권의 인쇄본이 확인된 것입니다.

새로 발견된 이들 인쇄본을 통해 101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초조대장경판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현존하는 3000여 권의 초조대장경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촬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촬영된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가공되어 2011년에는 복원 출간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까지 남은 기간은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1년을 기념하는 일은 인쇄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기회가 되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 세대가 불교 및 문화 자료를 처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예전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서아시아 종교사가 정보의 유포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인쇄 기술은 불교가 동아시아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고려 초조대장경판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1011년의 바로 그 순간은 중요한 전환점이요, 분기점이었습니다.

1011년 고려는, 손으로 글 쓰는 것으로부터 인쇄를 통한 대량복제 체제로 그들의 관심을 이동시켰습니다. 2011년엔 우리는, 책자 형태의 종이 복사에서 인터넷에 존재하면서 세계 수 천의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복사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1세기 선조가 이룬 공헌을 바르게 계승하게 됩니다.

2011년은 새로운 기술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든 고려인들의 업적을 오늘날 우리도 해낼 수 있음을 다가올 미래에 제시하는 시간이기도 할 것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고무신코 만 행 화

■ 소재특징 : 초극세사, 방수원단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7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최고의 선물

초극세사
• 가격 : 50,000원
• 규격 : 215–255mm
• 색상 : 검정, 회색

건강슬리퍼
발볼조절가능
바이오실리콘
초극세사 (방수원단)
풍산동 99%
• 가격 : 50,000원
• 규격 : 230–280mm(10mm단위)
• 색상 : 진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네이버(NAVER) 주소창에 한글 ‘만행화’를 치세요!!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전주 상운각 063)274-6639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대구승복 042)254-8772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